

国立地質調査所는 어디로?

— 工業技術庁의 外所로 設置할것을 請願 —

請願団体

大韓地質学会(會長 孫致武)

大韓鈹山地質学会(會長 文諷柱)

大韓鈹山学会(會長 金鍾射)

地球科学教育研究会(會長 金玉準)

지난 5月30日 國務會議은 工業技術廳을 商工部 傘下에 新設하는 內容의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을 議決한바 있는데 이는 國內科學技術發展과 科學技術者를 優待코져 하는 政策의 配慮에서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科學技術界의 大幅의인 支持를 받고 있으나 從來 科學技術處傘下에 있던 國立地質調査所가 現在 商工部傘下에 있는 國立鑛業研究所와 함께 앞으로 發足할 工業技術廳의 地質研究部로 廢合케 된데 對해서는 異論이 있다.

即 이러한 機構改編은 地質調査所 自體의 効率的인 調査研究活動을 저지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元來 地質調査所가 國家社會에 對하여 지니고 있는 莫重한 役割을 감안할때 再考를 促求하지 않을수 없다고 關係學會에서 主張하고 나선 것이다.

即 從來 地質調査所는 3部9課로 200餘名의 所員을 가지고 國內 地球科學의 總本山으로서 廣範한 일을 해왔는데 이번 改編案에 依하면 從來의 機能을 大幅 縮少하여 地質圖幅科·調査探鑛科·地探科·海洋研究科·選鑛分析科·製鍊科等 6個科뿐이란 點을 들어 于先機構의 縮少를 不合理한 처사라 말하고 있다.

또한 이 機構編제는 從來 機能의 一部에 不過한 鑛物資源探査一邊倒로 되어 基礎研究分野를 度外視한 감이 있으며 따라서 應用研究分野와의 均衡이 缺如되어 앞으로 地球科學研究活動에 根本的으로 차질을 초래할 것을 憂慮하고 있으며 研究調査活動의 効率化에 不可缺한 獨創性과 自律性保障이 될것인지 疑問이라는 것이다.

從來의 獨立 別定 研究機構體制가 行政能率 爲主의 系統組織으로 바뀜으로서 招來되는 調査所의 機能減少는 山積한 課業을 目前에 둔 現時點에서 國家發展의 基礎가 될 國土調査活動을

減退시키는 한편 地下資源探査等 應用研究을 不振케 할 可能性을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地質調査所의 役割이 根本的으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이루어진 政策에 根據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 決코 近視眼的인 정책에 左右될수 없다고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地質調査所의 大幅縮少는 外國에서 그 例를 볼수 없는 처사라고 關係各學會에서는 指摘하고 있으며 最近 韓國地質學者가 海外로 進出하는 數가 점차 增加一路에 있음은 外國에서 地質調査研究에 至大한 關心을 쏟고 있는 것과는 相反된 對照를 보이고 있으며 最近 눈부시게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環境科學의 世界的潮流와는 逆行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國內외의 地質調査所의 現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地質調査所의 現在の 任務 및 方針

① 任 務

國土全域에 賦存하는 地下資源을 科學的으로 調査研究하여 그 賦存狀態와 埋藏量 및 品位를 正確히 評價 把握하여 鑛業開發利用에 關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同時地球에 對한 學理的 研究을 實施하여 地質學發展에 寄與하는데 있다.

② 方 針

- 1) 圖幅調査, 廣域鑛化帶調査, 海底探査에 注力
- 2) 基礎試驗研究에 힘써 底力培養
- 3) 國際技術協力を 통한 技術向上 圖謀

2. 우리나라 地質調査의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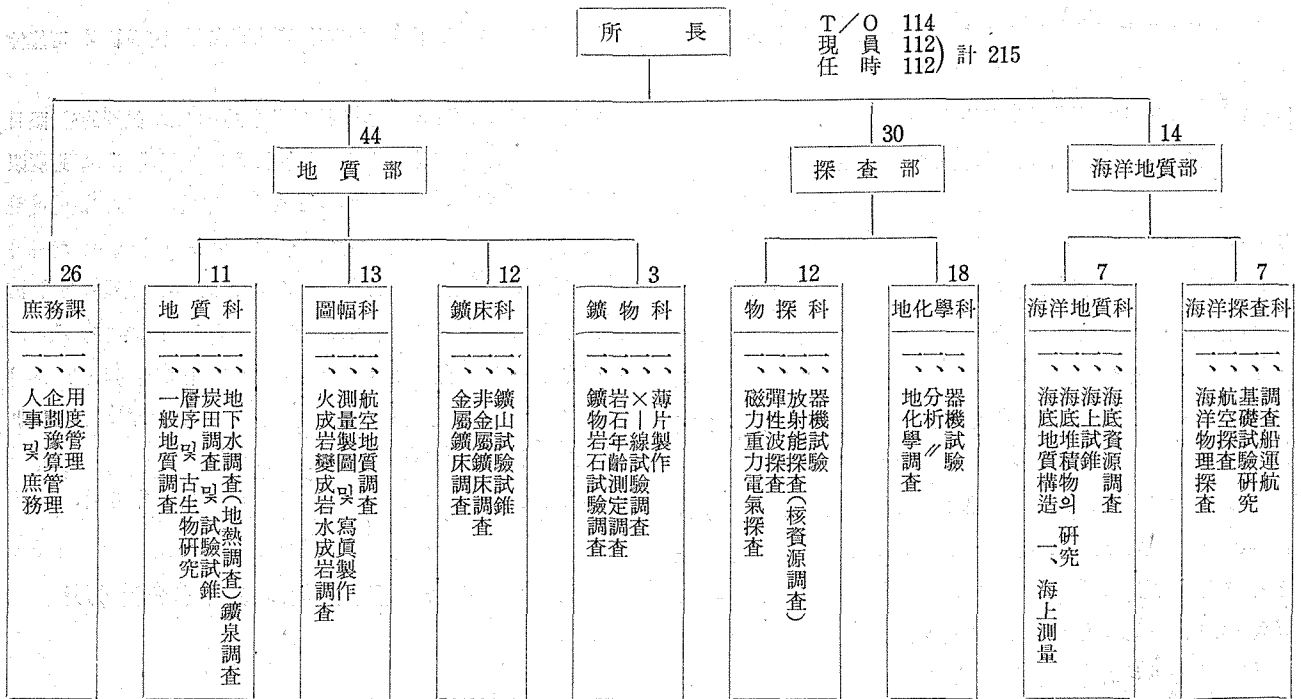
年 月 日	變更根據	名稱規模 및 內容	備 考
1818. 5		地質調査所設置	
1822. 4		燃料選鑛研究所設置	
1946. 4		中央地質鑛物研究所로 改稱(위 2機關統合함)	
1854. 3		운크라大田鑛物試驗所創設	
1956. 5		大田試驗所設置 (운크라로 부터 移讓)	
1962. 10		國立地質調査所로 改稱	
1967. 4. 12	大統領令 第3000號	國立地質調査所職制改編 商工部에서 分離 科學技術處로 職制改編)	
1869. 8	大統領令 第4027號	國立地質調査所職制改編 (海洋地質部新設)	

4. 各國地質調査所の 政府機構上 位置와 比重

① 主要各國의 地質調査所 所屬機構

- 1) 美 國：內務省, 地質調査所
- 2) 英 國：教育科學省→高等教育科學長官→ 自然環境研究會 議→地質研究所·地質博物館
- 3) 日 本：通商產業省, 工業技術院 地質調査所
- 4) 西 獨：經濟省, 聯邦地質研究所
- 5) 프랑스：産業開發·科學研究省, 地質·地球物·理鑛山研 究所
- 6) 이탈리아：總理府 科學技術會議 地理·地質學委員會(연구원)

3. 우리나라 地質調査所の 現機構와 業務內容



7) 캐나다：內務省, 地質調査所

8) 自由中國：臺灣省, 地質調査所

9) 越 南：經濟省, 地質調査所

10) 濠 洲：天然資源處, 地質調査所

11) 印 度：經濟企劃院, 地質調査所

12) 泰 國：經濟企劃院, 地質調査所

13) 이스라엘：開發省, 地質調査所

14) 터키：獨立 地質調査所(總裁所長)

15) 말레이시아：工業開發省, 地質調査所

16) 파키스탄：鑛物資源處, 地質調査所

17) 뉴질랜드：科學技術研究廳 地質調査所

18) 멕시코：獨立地質調査所

19) 오스트리아：科學技術省, 地質調査所

20) 인도네시아：經濟省, 地質調査所

② 其他 地質調査所를 別定 獨立機關으로 둔 나라

코스타리카·큐바·하이티·자마이카·니카라과·알제틴·볼리비아·칠레·콜롬비아·기아나·우루과이·벨지움·체코슬로바키아·덴마크·핀란드·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델란드·노르웨이·폴란드·폴투갈·루마니아·알제리아·앙골라·부룬디·스페인·스웨덴·스위스·유고슬라비아·콩고·콩고공화국·다호메이·에티오피아·佛領소말리란드·가아나·아

이보리코스트·말라가시·말라위·모로코·모잠비크·니이저·나이지리아·르완다·세네갈·南阿·사우드웨스트아프리카·스와질랜드·탄자니아·이란·토코·튀니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等

現在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만도 70餘個國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2年 6月 日

새마을기술봉사단중앙본부장

김윤기박사께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술지도 교본을 보내주소서」!

慶北金陵郡大德面台里一里

農事改良俱樂部會長 洪 性 五

존경하는 會長任

거족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의 봉사를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기술지도를 하여 주시는 중앙회장님께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불초 小人은 慶北金陵郡大德面台里一里에 居住하는 27세의 청년으로서 慶北에서 第一 높은지대인 우두령((585 M 慶南北間의 재) 아래에 위치한 고산준령의 험준한 산악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山間僻촌의 낙후하고 퇴폐한 촌락을 1980년대까지는 理想村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난해(1971年)1月 1일에 마을농사개량구락부를 조직하여 一차사업으로 농민소득증대사업에 새로운 영농기술교육과 양축마을조성을 위해 양잠, 축산 등 一年동안 모진 각오를 무릅쓰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리적여건과 행정구역에서 멀리 떨어진데다가 동민들이 낙후하고 퇴폐한 옛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今年엔 계획을 바꾸어 우선 동민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낙후하고 퇴폐한 동민정신을 개조해서 근로정신을 조성하고자 今年 2月1일에 本人이 염소 1마리(값 8,000원)를 팔아 「마을문고」를 설

립하여 야간농민학원을 개최해서 정신개조와 영농, 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 있어 4개월이 지난 현재 마을의 주막(술집)과 도박을 없애는 등 퇴폐풍조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이제 동민들도 마을 도서실에 찾아와 책을 빌러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읽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小人도 땀흘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찾는 영농지식에 관한 책은 불과 몇권 되지않아 동민들이 영농지식에 관한 책을 찾을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회원들과 동리사람들께 책을 구입해야겠다고 도서구입비를 청구하면 자칫 오해를 사게 되어 동민의 참여의식이 줄고 도서열이 식혀갈까 염려가 됩니다. 저 혼자 고심하는중 지난번에 서울신문에 중앙본부회장님께서 14가지 교본을 만들어 전국 6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저희 마을은 3개자연부락으로 120여호 농가호수로서 아직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지않아 새마을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부채널」을 통해 전국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되는 책은 결코 저희 부락에는 배부받지 못합니다. 이점 참작하여 주시고 깊이 통찰하시어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한정된 예산과 발행부수가 짜여있으므로 山間僻村 저희 농사개량구락부까지 배부될 책은 없는줄 압니다. 그러므로 회장님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중앙회장님께서 보내주시는 책은 중앙회장님 金允基박사님 기증이란 기록을 해서 회장님의 노고를 길이 되새기고저 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제전의 햇불이 되어 새마을기술지도사업을 위해 노심하시든 회장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오며 새마을기술봉사단중앙본부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西紀一九七二年 六月二八日